

전북 농어촌유학, 4년새 12배 증가

올해 1학기 기준 333명 2022년 27명 대비 늘어 농촌 학교·지역사회에 활력... 행정적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농어촌유학 사업이 4년 만에 12배 이상 확대되며 농촌 지역 학교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농어촌유학생 333명이 순창 진안, 임실 등 전주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 초등학교에서 새 학기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203명은 기존 유학생이 유학을 연장한 경우이며, 130명은 올해 새롭게 참여한 학생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19명, 서울 104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 학생 비중이 높았으며, 광주 18명, 전남 17명, 대전 13명, 울산과 충남 각 11명, 부산 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 농어촌유학사업은 2022년 27명에서 시작해 4년 만에 333명으로 늘어

나며 12배 성장했다. 참여 학교도 같은 기간 6개 학교에서 44개 학교로 확대돼 7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는 각 학교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데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유학생과 가족의 정착을 지원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학교별로는 신체검사와 건강지원, 예술활동, 독서 및 체육 프로그램, 탄소중립 교육, 체험형 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있다. 다른 지역 학교들도 탐구·예술·체육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전북교육청과 지자체는 유학생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재비 지원과 거주시설 마련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농어촌유학사업이 4년 만에 12배 이상 확대되며 농촌 지역 학교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농어촌유학 한마당.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임정진 교육협력과장은 “농어촌유학은 단순한 전학을 넘어 삶의 전환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 모델”이라며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

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 도민이 설계한다’

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 공약 제안 플랫폼 구축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 정책 설계에 나선다.



이 예비후보는 18일 전북 교육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동네 맞춤형 교육 아이디어’ 공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 4주체를 포함한 도민 누구나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열린 소통 창구다. 기존의 일방적 공약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참여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플랫폼에서는 지역별 교육 현안부터 학교 환경 개선, 미래교육과 인공지능(AI) 교육,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된 제안은 검토 과정을 거쳐 실제 공약에 반영될 예정이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피드백과 정책화 과정도 공개해 정책 수립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공약 제안 간담회’를 병행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통 체계도 구축한다. 도민들은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교육 정책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별 교육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교육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도민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우석대, ‘완주취업반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논의

우석대학교가 지역 청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완주취업반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참여기업 확대에 나선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지난 17일 전주캠퍼스 문화관 잡카페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완주군 관계자 등에게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여기업 확대와 단계별 운영 체계 구축, 운영 범위 확장 등 프로그램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완주취업반 프로그램은 지난해 완주군 소재 기업 5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지역 청년과 기업 간 취업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참여기업을 10개사로 늘리고, 운영 범위도 완주군 중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운영 방식도 단계별로 세분화된다. 1학기에는 기업 채용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의 기업 이해도를 높이고, 2학기에는 현장자 멘토링과 기업탐방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영 지역 확대에 따른 신규 기업 발굴과 프로그램 명칭 변경, 참여자 모집 및 홍보 방안 등도 주요 논의 사항에 포함됐다. /오상근기자

전북 학생들 독서열기 ‘후끈’

전북교육청 학교도서관 활성화 ‘성과’ 새학기 첫 2주간 도서 대출 권수 전년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새학기 학생들의 독서 열기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새학기 첫 2주간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도서 대출 권수가 9만 7,376권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만9,691권보다 약 63%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는 사서교사와 사서 인력 확대 배치,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등 그간 추진해온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율은 2023년 18.2%에서 2024년 22%, 2025년 35.8%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올해는 38.3%까지 확대됐다. 현재 도내 742개 학교도서관 가운데 284곳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돼 있다.

공강 혁신도 독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200개의 미래형 학교도서관은 독서뿐 아니라 토론, 협업, 휴식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으며 학생들의 이용을 끌어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독서·인문교육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새학기 학생들의 독서 열기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주삼천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하고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학교도서관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함께 도내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 연수를 진행한다.

연수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확대, 독서 프로그램 운영, 독후활동 활성화 등 주요 정책 방향과 실천 방안이 공유될 예정이다.

임영근 문예체전과과장은 “지난 3년간 인력과 시설 확충을 통해 학교

도서관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수업과 연계한 활용과 가정 연계 독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교사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교사의 영어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Teachers ON! 교사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교사 156명을 대상으로 2기수에 걸쳐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영어 의사소통 경험을 직접 쌓을 수 있도록 북미권 원어민 강사와의 실시간 1대 1 화상수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교사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을 지원하고, 영어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수강 교사의 92.8%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사전 안내된 온라인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사 대상 프로그램과 함께 학생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도 병행해 학교 현장의 영어교육 전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피지컬AI·글로벌 전략으로 Top100 도약 본격화” | 양오봉 전북대 총장, 취임 3주년 맞아 중장기 전략 제시

전북대학교가 취임 3주년을 맞아 양오봉 총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Top100 대학’ 도약을 본격화한다.

양 총장은 18일 전북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피지컬 AI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글로벌 허브 전략을 통해 전북대를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지난 3년간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외부 연구비 등 총 1조19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며 대학역사상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또 수의학, 석유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물리화학, 고분자화학 등 다수 학문 분야가 세계 100위권에 진입하며 연구 경쟁력도 입증했다.

양 총장은 “지난 3년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시기였다”며 “이제는 변화를 넘어 성과를 증명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특히 대규모 재정 확보를 기반으로 교육·연구·산학협력·글로벌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갖췄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전북대는 향후 핵심 전략으로 ‘피지컬AI’를 제시했다. 피지컬AI는 센서 인지와 로봇·장비의 물리적 행동이 결합된 차세대 인공지능으로, 산업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다.

전북대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1조원 규모 국가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기술 개발과 실증 산업화,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동영 장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과 김관영 지사의 적극 행정이 이 사업에 더욱 힘을 보태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 5,488억원 규모로 협업 지능 기반의 피지컬 AI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4,255억원을 투입해 핵심 연구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0억원을 들여 글로벌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업 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교내에 1,000명 규모의 실증팀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과 기술 검증을 진행 중이다.

양 총장은 “피지컬AI 생태계를 구축해 전북을 국가 AI 산업 실증 거점

으로 만들겠다”며 “전북을 미래 제조 혁신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닌 구조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총장은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재정 확충을 통해 교수당 학생 수를 줄이고 연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성화 단과대학과 융합연구원, AI 거점대학 구축을 통해 ‘지원 받는 대학’이 아닌 ‘성과를 만들어내는 대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AI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총 167억원을 투입해 교육·연구·행정을 통합하는 플랫폼인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JUMP’를 구축 중이며, AI 튜터와 취업 지원 시스템 ‘AI JOB’ 등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2개 이상의 학사·행정 시스템을 통합하고, 졸업 요건 자동 진단 등 기능을 제공해 대학 운영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18일 전북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피지컬 AI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글로벌 허브 전략을 통해 전북대를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끈다.

양 총장은 “배우고 연구하고 취업 준비하는 전 과정에 AI가 작동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전략으로는 유학생 확대와 정주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전북대는 해외 7개 국제센터로 기반으로 ‘해외 모집-국내 교육-취업-정주’ 체계를 구축해 2028년 5000명, 2035년 1

만명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전국 첫 지역 재생 및 대학 국제화 결합 모델인 ‘남원 글로벌캠퍼스’를 통해 외국인 특화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해외 7개 국제센터를 기반으로 ‘해외 모집-국내 교육-취업-정주’ 체계를 구축해 2028년 5000명, 2035년 1

만명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전국 첫 지역 재생 및 대학 국제화 결합 모델인 ‘남원 글로벌캠퍼스’를 통해 외국인 특화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해외 7개 국제센터를 기반으로 ‘해외 모집-국내 교육-취업-정주’ 체계를 구축해 2028년 5000명, 2035년 1

양 총장은 “유학생 유치는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지역 상생 모델인 ‘JUC 트리아앵글’도 성과로 제시했다. 전주·원주(농생명·수소), 새만금(이차전지·방산), 익산·정읍(팻바이오텔)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 구조로, 연구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와 방위산업연구소 설립 등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첨단방위산업학과’를 학부 과정으로 신설했다. 방위사업청과 주요 방산기업과 협력해 AI 기반 방산 간계를 양성할 계획이다. 최근엔 5년 7기역원이 지원되는 ‘첨단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도 선정돼 방산 AI 특화 부트캠프를 본격 개강한다.

양 총장은 “K-방산을 이끌 핵심 인력을 전북대에서 직접 길러내겠다”며 “대학이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 /뉴스시스